
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	
		배포일자	2022년 6월 27일(월) 총 2매	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과	담 당 자	• 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☎440-4211 • 담당자 허정규 ☎440-421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e음 카드, 9월 추경 전 개선 방안 마련

- 7.1.부터 캐시백 5%, 지원한도 30만원 임시 조정 -

인천광역시는 ‘인천e음’의 캐시백을 임시적으로 5퍼센트로 조정하고 지원 한도를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8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.

조정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월 30만 원 이하 사용액에 대해서는 5%의 캐시백을 지급할 예정이다.

인천e음 활성화 수단 중의 하나로 도입됐던 캐시백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사랑상품권 적극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2020년 이후 할인율 10%를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왔고, 현재까지 10%를 유지하고 있다.

그러나 올해 국비 지원규모는 대폭 축소된 반면,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금을 인천e음으로 지급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\*하고,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이 빨라지면서 인천e음 사용액은 대폭 증가했다.

\*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기간 중 인천 e음 가입자 약 60만 명 증가(167만→228만)

이로 인해 캐시백 지원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황이며,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 마련 전까지 캐시백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시적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.

신종은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“9월 이후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동향,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인천e음의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.” 며,

“당초 인천e음 도입 취지에 맞추어 영세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결제 수수료를 제로화(0%) 하고 더 많은 캐시백을 지원하는 한편,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안에서는 더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.” 고 설명했다.

#### <참고> 인천e음 발행현황

구 분	가입자수 (명)	발행액 (억원)	인천시 예산 (억원)	국비 전국지원예산 (억원)	비고
합 계	2,335,001	9조9,582	8,728 (국3,047/시5,681)		
2018년	12,130	6	-	-	시범 운영
2019년	917,398	1조5,063	729 (국224/시505)	884	
2020년	456,080	2조4,945	2,138 (국660/시1,478)	6,690	
2021년	799,046	3조5,805	3,434 (국1,436/시1,998)	1조2,522	
2022년	150,347	2조3,763	2,427 (국727/시1,700)	6,000	'22.6.22. 기준